

1970년대 패션

- 디스코시대 : 보수와 실용(1976-1990)

시대적 배경

불안한 세계

- 197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979년 초 미국의 동맹국인 이란; 마지막 절대 군주제가 종말을 고했음.
- 중동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으며, 1975년 베트남전쟁이 일 단락되었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새롭게 주요 국가로 부상.

석유 파동과 환경문제

- 1970년대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확보문제가 처음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1986년의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는 기술적 진보에 대한 우려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킴.
- 1970, 1980년대의 패션산업은 자연 섬유를 생산하고, 인조 모피를 개발하고, 직물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모색·실천함으로써 패션산업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

시대적 배경

1.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달러 쇼크

- 이에 따른 인플레이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기로 사회적으로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하던 시기

73년의 세계적인 유류과동으로 인해 이제까지의 '소비는 미덕' 인 시대 → 절약이 미덕'인 시대

1970년대의 젊은이들은 개인적인 목적과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기 시작.

베이비 붐 세대 - 전 시대에 비하여 결혼과 가족양식이 변화

하위문화의 패션아이콘화

스타일링의 시대도래;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스타일 공존



안티패션;

급진적 재사고, 펑크, 라
스파타리안, 글램, 유니
섹스

하이패션으로
진입

스트리트 패션;

영국의 킹스로드, 히피,
레이어드, 캐주얼

사회문화적 배경 >>록 가수와 영화

-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 마돈나(Madonna),
-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
- 프린스(Prince),
- 보이 조지(Boy George),
- 신디 로퍼(Cindi Lauper),
-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1970년대 전반: 진은 유행에 따라 색상or방식 등 변화;많은 미국의 기성복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자주 데님을 등장→ ‘디자이너진’ 생산

신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기능복의 도입을 촉진→의복 소재도 천연섬유가 선호

한편 남성들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정장의 사무복 대신에 레저 웨어와 스포츠웨어를 즐겨 입음

1970년대 계속되어 이브 생 로랑: 러시아 룩을 발표

1974년 파리 컬렉션: 1930년대 의상을 부활시킨 레트로 룩을 발표→ 클래식 룩을 정착시킴. 여기에 여유가 있는 루스룩이 주류를 이룸

패션 경향; 기성복 시장의 확대

70년대의 경기 침체 : 보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입게 됨

- 60년대 70년대 초 : 패션을 통해 개인적인 취향을 더욱 잘 표현하게 됨
- 비구조적이면서 일상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함

니트의 열풍 → 각종 아이템에 모두 사용

팬츠의 전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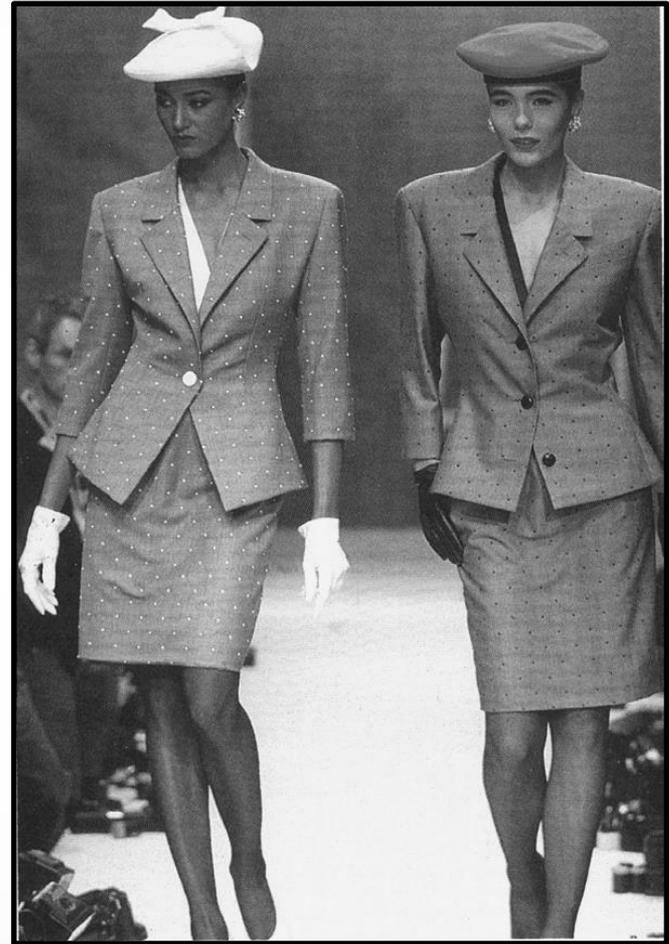
- 입생로랑
- 1970년대 초반의 의상은 1960년대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핫팬츠가 약간의 변화를 일으킴

1970년대부터 패션산업의 국제화가 시작 : 일본 패션계가 급부상함



여성의 역할 변화와 남녀 복식의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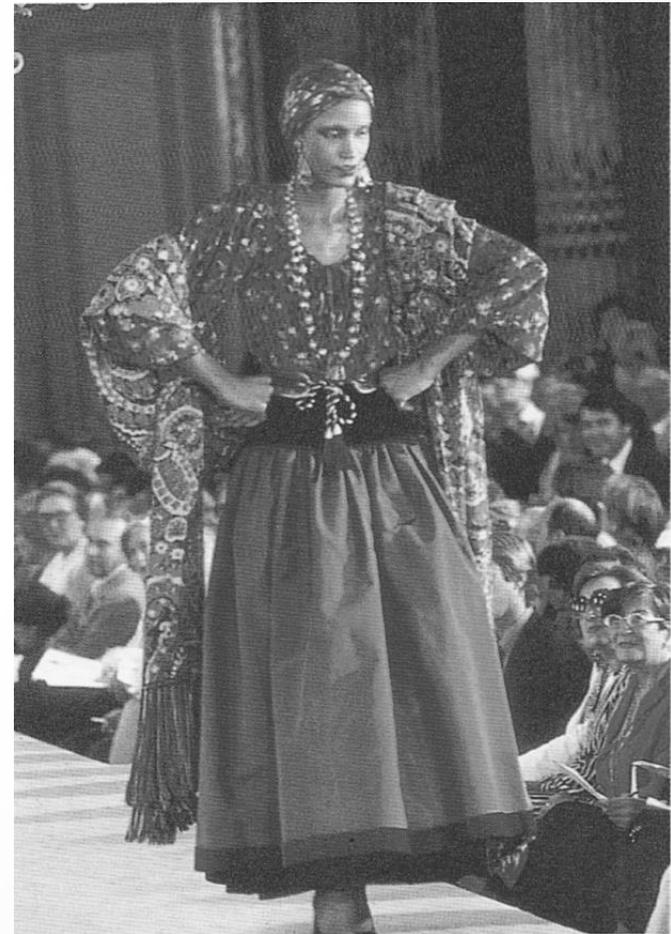
- 파워 수트
 - 1978, 1979년경부터 의복의 실루엣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가 되자 어깨를 강조한 새로운 수트 스타일인 **빅 룩(big look)** 이 등장.
 - 파워 수트(power suit) : 어깨심을 넣은 넓은 어깨와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재킷과 재킷 아래로 조금 보일 정도의 무릎 위 10cm에 이르는 짧은 스커트로 이루어짐
 - 존 몰리(John T. Molly)는 그의 책인《성공을 위한 옷차림(Dress for success)》에서 직장 여성들에게 바지 정장보다는 남성 정장의 여성스러운 해석인 어두운 색의 테일러드 재킷과 치마로 이루어진 정장을 입되, 남성의 와이셔츠와 유사한 블라우스를 입을 것을 제안.



파워 수트,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1987년 S/S 시즌 컬렉션

민속풍

- 1970년대 파리 컬렉션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민속의상을 디자인 영감으로 한 패션이 유행.
- 1975년경에는 카프탄 드레스와 이브 생 로랑이 창안한 오버올 룩이 유행했고, 이와 동시에 차이나 룩이 유행하였는데, 아시아권의 영향은 1976년에도 지속되었는데 중국의 장삼 과 일본의 기모노, 말레이시아의 사롱 등을 영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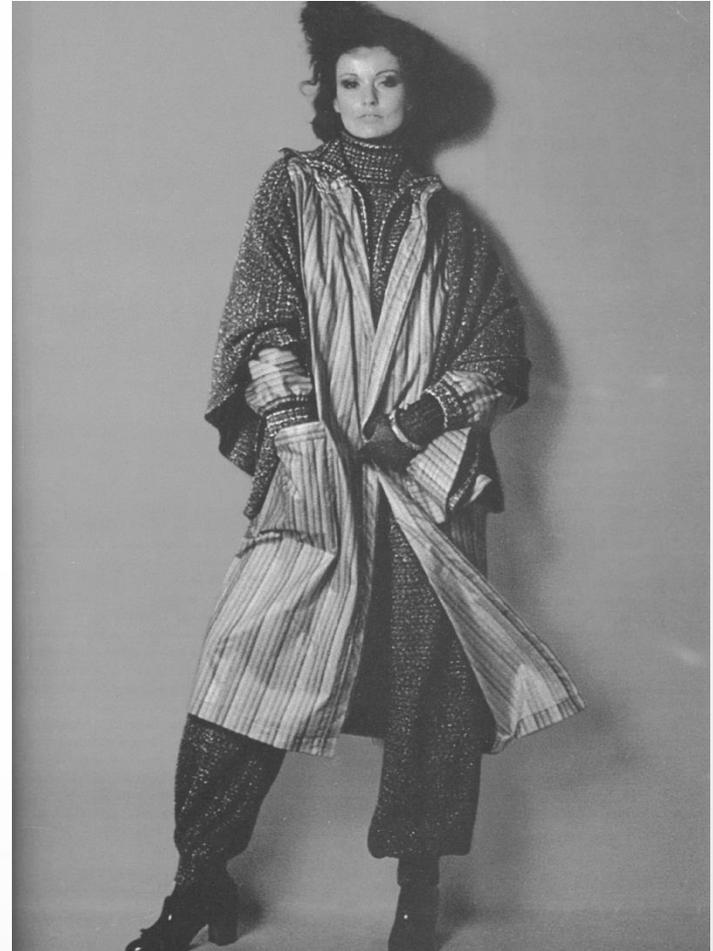
이브 생 로랑의 러시아에서 영감을 얻은 민속풍 디자인, 1976/1977년

ethnic look, full-bottom jeans



레이어드 룩(layered look)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사람들은 실용적이며 저렴한 가격의 옷들을 층층으로 겹쳐 입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을 시도
 - 레이어드 룩은 의복을 겹쳐 입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 크게 유행.
 - 1970년대 말에는 솜을 댄 중국식 코트나 오리털로 안을 채운 스키 재킷에 영감을 받은 오리털 코트가 유행.



1970년대의 레이어드 룩

남여공용의상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유니섹스 의상은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경향을 보이며 유니섹스 모드로 발전
- 유니섹스 룩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 1969년 ‘보그’
- 유니섹스 룩은 처음에는 반항의 표시 → 패션화 되면서부터 단순한 작업복에서 패션산업의 주요 아이템으로 변화
- 유니섹스 룩의 전개는 중성적 또는 성의 개념이 사라진 성의 혁명



미니 / 맥시 / 판타롱의 공존

- 레이어드 룩의 성행
- 길고 가는 실루엣,
- 기하학적 무늬,
- Pop 감각 핫 팬츠
- 숄더 백, 털장식, 브로치,
- 맵시를 내는 모자, 블레이저,
- 셔츠 블라우스의 전성기,
- 마린 룩, 자연풍,
- 컨트리 필링,
- 컨트리 패션



70's PUNK FASHION

-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펑크 패션:인간정신의 표현
- 펑크현상은 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이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을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반모드 현상
- 영국의 특수한 경제 불황 하에 일부는 팝 스타를 모방하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또한 일부는 히피의 움직임과 함께 형성
-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을 목적
- 펑크는 하이패션에 새로운 감각으로 신선함을 던져 주었고 현재까지도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현대패션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줌



히피스타일

- 히피룩-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 남성은 장발과 수염, 굵은 벨트와 부츠로 스타일링 하였고 여성역시 긴 장발을 풀어 헤치고 미니스커트나 롱스커트에 맨발로 샌들을 착용하는 형태
- 수트-넓은 어깨의 날씬하고 긴 재킷 과 짧은 조끼, 판탈롱 팬츠로 구성되고 셔츠의 칼라를 재킷 밖으로 꺼내 입은 형태



Hippie look
히피 룩

Country look / Peasant look

패션트 룩-히피 정신이 담긴 복고주의, 낭만주의, 자연회복 운동 영향으로 70년대 초반의 합성섬유에서 70년대 후반에는 천연섬유 사용

>> 플라워 프린트, 아프칸 스타일의 직물을 반영한 , 에스닉, 보헤미안, 포클로어 스타일 들의 패션트 룩이 유행



디자이너

- 아네스 베; 캐주얼을 디자이너 브랜드로
- 소니아 리키엘; 니트의 여왕
- 겐조; 정글의 제와, 히피,
- 비비안 웨스트우드; 핑크
- 장부캥, 로라 애슐리; 안티패션의 비즈니스화
- 세루티, 미소니; 이탈리아 패션
- 제프리 빈, 할스턴; 미국적패션

액세서리

- 남자들의 넥타이는 1970년대 말까지는 그 폭이 좁아지다가, 199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넓어졌음.
-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골드체인이나, 귀걸이 등의 보석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 기념 반지, 점잖은 시계, 타이 클립, 타이 핀, 커프스 단추 정도를 착용.
- 시각이 숫자로 표시되는 시계가 1976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70년대 영화의상

- 마이걸

- 토요일 밤의 열기

(1991/하워드 지프 감독/안나 크럼스키, 덴 에크로이드, 제이미 리 커티스 주연)



(1977/존 바담 감독/존 트라볼타, 카렌 린 고니 주연)



The 70 show

(1998-2006/폭스 방영 시트콤/토퍼 그레이스, 로라 프리폰, 애시톤 커처 주연)



참고문헌

-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고애란, 교문사
- 서양패션멀티콘텐츠, 김민자 외, 교문사
- 서양복식문화사, 정흥숙, 교문사
- 네이버 영화